

# 남북송유관 기본계획

- 동력자원부 -

## 남북송유관 기본계획

- 동자부는 京仁간 송유관 건설에 이어 92년 완공 목표로 총연장 870km, 총 공사비 약 3,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남북송유관의 건설방침을 최종 결정했다.
- 동자부의 건설방침에 따르면,
  - 송유관 건설 기본계획상 단선으로 되어 있던 서울 - 大田구간을 안정수송 보장 및 송유관운영 효율 제고를 고려하여 복선화하기로 하고 구간별 사업 주체는 실수요자인 정유사와 유개공이 공동건설하기로 하였다.
  - 구간별 사업주체를 보면 동부송유관에 해당되는 溫山 - 蔚山 - 大邱 - 大田 - 서울구간중 溫山 - 蔚山 구간은 油開公, 雙龍이 공동건설하고, 蔚山 - 大邱 구간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油公송유관을 油公, 雙龍이 공동사용하되 향후 송유물량증가를 감안하여 관련업체가 추가설치 여부를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大邱 - 大田 - 서울구간은 油開公, 油公, 雙龍이 공동건설하기로 하였다.
  - 또한 麗川 - 大田 - 天安 - 서울구간(서부송유관)중 麗川 - 天安구간은 油開公과 湖油가 天安 - 서울구간은 油開公, 湖油, 極東이 각각 공동건설하기로 했다.
  - 구간별 참여업체간의 투자지분은 민간기업의 지분

합계가 50% 이상을 점유토록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제고시키기로 하고 다만 송유관 운영상의 공공성 보장을 위해 油開公에 적정지분을 배분하기로 하였다.

- 또한 송유관로를 따라 설치되는 제품저장 터미널은 참여업체별로 자체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건설하기로 하되 정부차원에서 제품의 비축이 필요한 지역에는 油開公이 참여하기로 하였고, 한편 정부는 송유관사업의 공공성·대규모성을 감안 이들 송유관및 터미널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부지확보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정부는 투자지분 비율, 별도회사 설립여부 및 송유관 운영등에 관한 업계간 세부적인 협의를 위해 7월 10일까지 사업추진본부를 설치토록 하였고, 업계간 합의가 이루어지는대로 금년 하반기부터 조속히 공사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 남북송유관 건설추진 기본방침

### 1. 사업주체별 참여지분

- 관로별 사용업체 및 油開公 공동투자
  - 참여지분은 참여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민간기업의 참여지분합계가 50% 이상일 것.
  - 油開公은 운영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적정지분

확보(자금사정 감안)

2. 관로별 참여주체(서울 - 大田구간 복선건설)

- 溫山 - 蔚山 - 서울구간
    - 蔚山 - 溫山(13km) : 雙龍, 油開公 공동건설
    - 蔚山 - 大邱(119km) : 기존 油公송유관 사용(油公, 雙龍 공동사용)(단 시설능력 부족등 이유로 신설 필요시는 공동건설)
    - 大邱 - 서울(305km) : 油公, 雙龍, 油開公 공동건설
  - 麗水 - 天安 - 서울구간
    - 麗水 - 天安(354km) : 湖油, 油開公 공동건설
    - 天安 - 서울(79km) : 湖油, 極東, 油開公 공동건설
- \*복선구간은 동시건설

3. 터미널 설치

- 참여업체별 독자 또는 공동건설
  - 단, 독자건설 경우에도 제품저장이 필요한 지역에는 油開公 참여
- 정부의 적극적인 부지확보 지원

4. 운영방식

- 공공적 운영
  - 구간별(溫山 - 서울, 麗水 - 서울) 참여회사간 협의로 별도회사 설치등 결정
  - 관계규정 입법화(송유요금 인가 및 수송거부 금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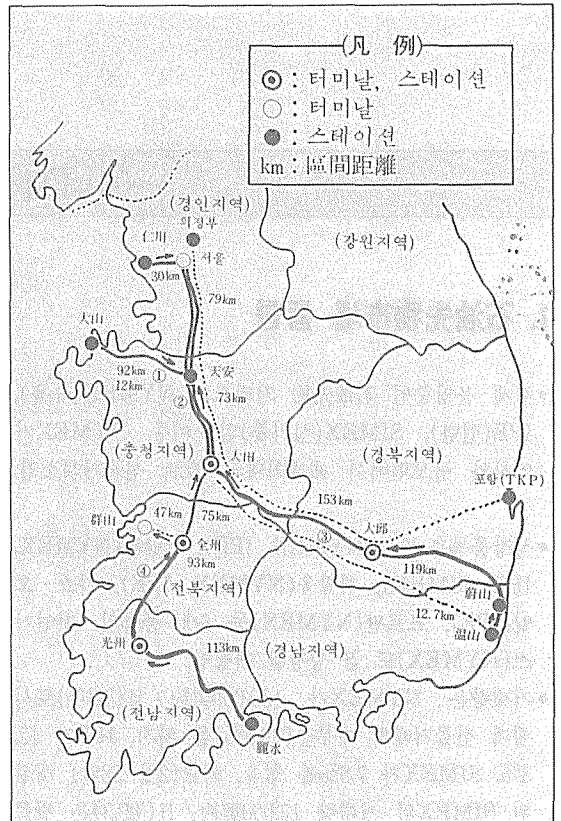
5. 자금조달

- 참여업체의 자체조달원칙
- 정부는 석유사업기금에서 최대 지원

6. 기타

- '89. 7. 10까지 구간별 사업추진본부 설치
  - 운영방식, 업체별 참여지분 등 결정
- 세부추진계획 수립, 당부제출

남북송유관 건설계획



□신간안내□

89년 石油年報

- 대한석유협회 기획부 -